

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활용 및 성과

장동현, 김성민, 최성진, 김현우, 한진영, 임홍석, 이재준, 방철한

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업성장본부 기상기후빅데이터센터

기후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기상분야 데이터와 타 분야 데이터의 융·복합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. 특히, 기상-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융합 연구 및 기술개발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이러한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유통 및 보안 관리가 필수적이다.

이에, 한국기상산업기술원(이하 '기술원')은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상기후분야 빅데이터 생산·분석 환경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기상 수치모델링 수행·데이터 활용 연구·기술개발이 가능한 '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'(이하 '시스템')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. 기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 시스템 활용을 지원하여 기상-재생에너지 분야 융합데이터 생산·분석 환경 제공을 통해 수요처의 신규 사업화 실적을 달성하였고, 매출액 창출에도 기여하였다. 또한 안정적인 분석 환경 조성을 위해 각 서버의 메모리를 기존 대비 2배 증설하여 다양한 데이터의 생산과 분석을 할 수 있게 하였다. 그 결과 전년 대비 약 20건 이상의 기상 서비스 및 기술개발 성과를 추가로 도출하였으며 기상-타 분야 융합 딥러닝 분석 환경을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.

본 발표에서는 기상기후산업 공동활용시스템 소개를 통해 운영현황과 활용 실적을 공유하고, 기상기후 빅데이터 연구를 주도하는 민관산학연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발전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보완 및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. 이를 통해 기상-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융합 연구 및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.

Key words: 빅데이터, 전산 인프라, 고성능 컴퓨팅, 기상산업 활성화, 공동활용

※ 이 연구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산업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되었습니다.